

美 록히드 샌더스社, 쿠웨이트 공군에 최신 전자교란장치 공급

세계 무기시장 교역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有數의 선진 방산업체들은 정책적인 지원아래 판촉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독과점해오던 미국도 최근 해외판매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美 록히드 샌더스(Lockheed Sanders, Inc.)社는 최근 쿠웨이트 공군에 AN/ALQ-126B 전자교란장치 42대를 공급했다.

이 장비는 美 해군의 요청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그동안 NATO 등 최우방국에만 공급되어 오다가, 최근 미국 방산업계가 활로를 찾기위해 해외판매통제가 완화되면서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납품(美貨 2130만불 상당)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배치된 ALQ-126B 전자교란장치는 총 1,143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ALQ-126B는 미 해군 및 해병대 전술전투기의 자체방호를 위해 장착되고 있는 재프로그래

가능한 전동 무선 주파수 전자교란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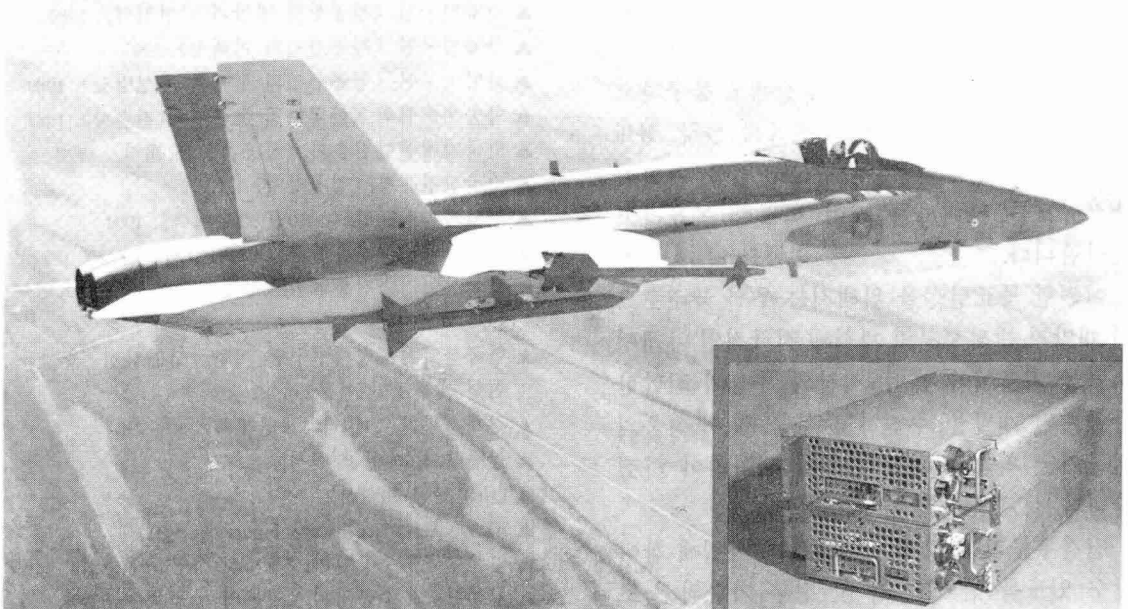
이 장치의 장착이 가능한 기종으로는 F-14, F/A-18, A-4, F-4, A-7, A-6 및 AV-8B 해리어기 등이 있으며, F-16등 有數의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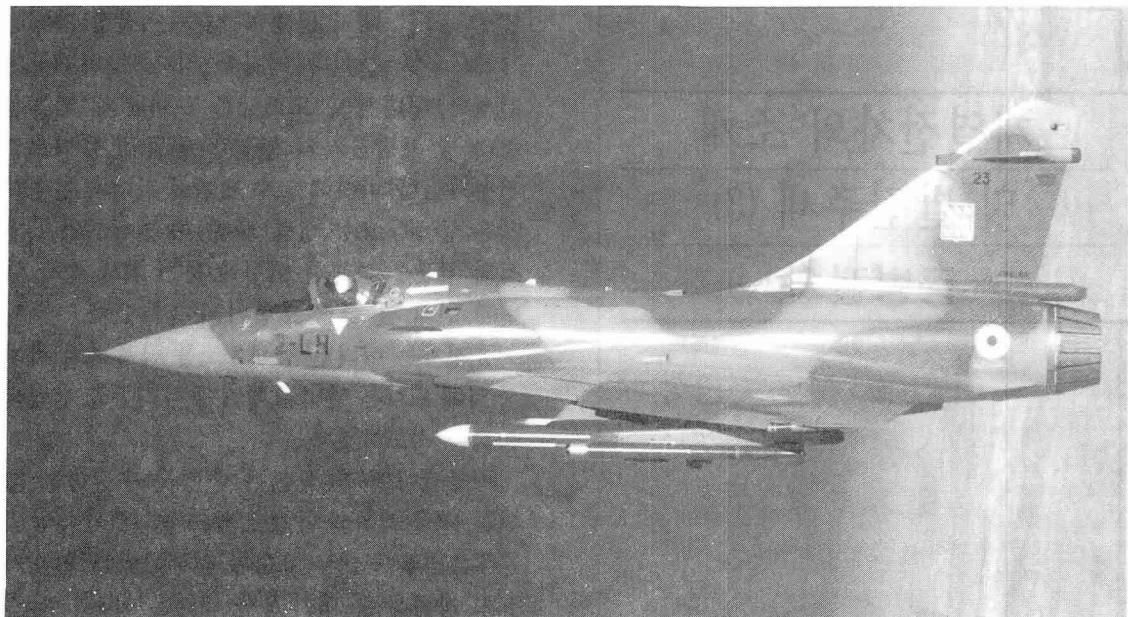
「사막의 폭풍」 작전시 널리 사용되어, 전투 효율성은 물론 종합군수지원체제 유지의 용이성 및 신뢰도가 입증된바 있다.

록히드 샌더스社는 첨단 방위전자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판매회사로 특히 전투기 자체방호용 전자 및 적외선 교란장치 생산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샌더스사는 이 밖에도 레이더, 디지털 항공전자, 신호처리장치, 해양 감시기, 대잠수함 무기, 항공 방위, 훈련 및 시뮬레이션, 자동시험 장치, 지휘통제장치 및 첨단 부품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

(자료 제공 : Communications Korea)

美 록히드 샌더스사의 AN/ALQ-126B(작은 box내 사진)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전동 무선 주파수 전자교란장치이다





東北亞 軍備 확장 “가속화”

일본 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지역방위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군비확장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5년 1백만명의 병력을 감축한 이래 매년 10만명의 지상병력을 감축시키고 있지만, 방위비는 오히려 매년 10%이상씩 증액하고 있다.

중국군은 항모기동함대의 편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건조중인 바그라야호의 구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러시아로부터는 SU-27기 24대와 MiG-29기 80대의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해군 역시 청도항에 대규모 잠수함기지를 완공한 이래, 해남도등에 기동함대기지를 건설하는등 海空입체전략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대만은 중국군 현대화의 목표가 곧 대만섬의 무력 장악이라는 위기감속에서, 92년 국방예산을 무려 1백9억불로 증가시켰으며, 미국으로부터 F16기나 F/A-18기의 구매를 타진하면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 프랑스로부터 1백60대의 미라주 2000(사진) 구입 전략을 짜놓고 있다.

대만은 또 날로 증강되는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프랑스로부터 프리깃함 16척을 사들이는 등 장비현대화와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등도 일본군의 캄보디아 입성, 중국군의 남사군도 파병등에 자극을 받아 방위예산을 11%에서 13%까지 늘리는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프리깃함을, 러시아에서는 MiG-29 전투기를, 프랑스에서는 미사일을 사들이고 있다.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입했으며, **싱가포르**는 GNP의 6%에 달하는 25억불을 군 현대화에 쏟아붓고 있다.

냉전종식이후 무기판매고의 격감에 고심중인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기수출을 지원하면서 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SIPRI의 <1992년판 군사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국가가 구입한 무기는 전체교역량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中東(21%)을 제치고 제1의 무기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